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참여 서약

지난 'Venture Korea 2002'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조출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표창을 받은 디지털웨이(대표 우중구), 인터큐브(대표 강원희), 티지코프(대표 정정태) 등 3개 회사가 협회와 매일경제신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한사랑벤처릴레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디지털웨이는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양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기술과 생산 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 단말기와 DATA모뎀 등을 개발해온 인터큐브는 총매출의 75% 이상을 수출로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티지코프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e-Payment와 m-Payment, 로열티 마케팅서비스 등으로 개발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사랑벤처릴레이는 지금까지 36개 벤처기업이 동참했다. 이날 3개 기업이 동시에 약정함으로써 참여기업은 총 39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우중구 사장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한다는 뜻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웨이는 70명의 직원 가운데 30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 한사랑벤처릴레이 참여 서약

• 알림 •

협회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장모금운동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심있는 벤처기업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회소식

경북지역 협회

경북벤처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대구경북지역협회와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가 침체된 지역벤처의 투자분위기 쇄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들 3개 기관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북벤처박람회' 행사에 발맞춰 2002경북스타벤처기업, 이른바 경북지역에서 우수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몰이'에 협공작전을 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내벤처기업에 대한 '거품'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냉각된 벤처투자 분위기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벤처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됐다.

특히 지역소재의 창투사뿐 아니라 다산벤처, 산은캐피탈, KTBnetwork, 바이텍스트하이테크, 코엘창투사 등 서울 소재의 굵직한 벤처투자기관들이 대거 참가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받을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한 벤처기업은 앞선사람들, 풍남반도체테크, 제노마인, 포스백 등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경북스타벤처기업에 선정된 유망벤처기업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업체들이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투자유치설명회는 기존에 박람회 부대행사로만 인식된 투자유치설명회와는 달리, 벤처캐피탈, 마케팅전문업체, 엔젤투자가 등 핵심투자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새로운 방식의 로드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SPA와 경북벤처박람회에 참가한 벤처 CEO를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이라는 강연을 병행함으로써 예비 IR대상업체들에게도 '정보교류'와 '투자자들과의 만남의 장'이 됐다.

경북투자유치설명회(IR) 참가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	사업분야
앞선사람들	박성수	컴퓨터 칼라매칭 시스템 컴퓨터 연료 자동 조역시스템
풍남반도체테크	권태일	반도체장비 제작 및 슬러리 재생업
제노마인	박유신	식물유전자 발굴 및 상용화 사업
포스백	정대화	진공 측정기